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아버이주일 :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 나누어 드립니다.

구호헌금 : नेपाल을 돕기 위한 구호헌금을 오늘 봉헌합니다.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간담회 : 세월호 유가족과의 간담회가 오늘 오후 2:30 교육관에서 열립니다. (3,4남선교회 5,6,7여선교회 준비)

초록장터 : 미자립교회를 돕기 위한 초록장터가 다음 주일(17일)에 열립니다. 이웃과 나눔 의류, 도서, 장난감, 가정용품 등을 초록가게에 기증해주세요.

사과분양신청 : 생협에서 사과나무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분양 가격은 135,000원(택배비 포함)이고, 8월말부터 사과 5박스과 사과즙 1박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앙실천 : नेपाल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다음 주 설교 본문			
1부	행 1:15-17 / 시 1	2부	담후 1:8-14
예배	요일 5:9-13 / 요 17:6-19	예배	

오늘 식당 봉사 : 박효선 허정윤 홍복선 김현주 김문주 이한님 조우석 한성건
 다음 주 식당봉사 : 이순정 오복순 원인혜 박안수 이윤석 이은미 장동훈 이광욱
 오늘설거지봉사 : 3여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 4여선교회
 떡 대 접 : 박범희 박미영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수요성경연구	19:30	교육관
토요성경읽기	10:30	세미나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 부활절 제7주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오소서 평화의 임금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32. 만유의 주재 다 함께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어주시지만 한 사랑, 받기만 했던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부모님이 보여주신 아름다운 헌신과 정신적 유산을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며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네팔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큰 슬픔을 딛고 일어나서 새롭게 일상을 회복하려는 이들을 도와주십시오. 여진의 공포 속에서도 재건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이들을 보살펴주십시오. 네팔 정부가 재건을 잘 진행해나가게 하시고, 국제사회가 지속적인 구호연대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히2:2,3 인도자

♣ 교 독 문 98. 아버지주일 다 함께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대표기도 박홍재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양 446. 주 음성 외에는 다 함께

♣ 성경봉독 I. 행10:44-48 요일5:1-6 요15:9-17 김동호 선생
 II. 창46:28-30 박석희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 양 어머니 노래 찬양대

말 씬 I. 사랑의 공동체 김재흥 목사
 II. 내가 너의 얼굴을 보다니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 함께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곽정자	구명자	국지연	권미정	권정자	김광일	이부용	김승현	김수진	김애순
김영순	김영아	김정민	이혜령	김정주	김정미	김종락	박영신	김종문	지명주
김종철	고영애	김주희	김지호	전혜리	김현동	오유경	김혜진	김희진	박홍재
노성희	김만균	류건형	이주은	문금석	문복순	박기영	박시내	배삼순	배재경
이수정	백묘현	서수진	서원금	안종일	정현주	양상철	박재란	오자영	왕수명
원용일	유금주	윤영미	이계선	이소순	이광섭	김수연	이동천	이민범	공재량
이범석	류정욱	이성범	권현숙	이우상	이계월	이인웅	오송경	이재문	이정은
이주영	오재영	이한림	김명희	임호성	장동훈	정은선	장미경	장영숙	정두리
정복순	정선희	정재기	정종삼	정현선	유병선	조경자	조문규	진정숙	조순덕
조지연	주은경	최은미	한상경	허호범	박성실	홍춘숙			

감사헌금

강순배	권정자	김광일	이부용	김기석	김희우	김대규	박경애	김만균	노성희
김정진	김혜정	김중수	이순정	김진중	문금석	문복순	박미연	박숙미	박철국
이숙자	양해일	우순덕	윤정덕	구성실	이경남	이광재	이은혜	장병준	박소현
장영숙	전인설	정두리	정현숙	최 숙	최 현	황경순	무명6		

생일감사헌금

강신철 김금순 김재광 전혜리 최규빈

녹색꿈헌금

권정자 김범운 김용길 최영혜 김정주 김정미 장미란 정연희 무명3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 음 장 소
예루살렘	백혜숙	박성희	문금석	박영희
안디옥	신진식	최경미	차혜심	최경미
가나안	장영숙	신영신	심	김명순
베다니	박홍재	박홍재	백묘현	문복순
시온	권미숙	박미영	배삼순	박효선
에베소	김금순	김금순	이봉옥	오복순
빌립보	곽권희	윤수진	윤미경	이정은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김명희	노성희
나사렛	김경혜	홍춘숙	김경혜	김희우
다메섹	박혜경	박혜경	정현숙	최숙
두란노1	김재흥	오자영		
두란노2	김재흥	송형운		
두란노3	이범석	이진영		
두란노4	이범석	곽상준		
두란노5	신진식	이오		

■ 마음으로 읽는 글

어머니의 성소

장독대의 향아리들을/ 어머니는 닭고 또 닭으신다
간신히 기동하시는 팔순의/ 어머니가 하얀 행주를/ 빨고 또 빨아
반짝반짝 닭아놓은/ 크고 작은 향아리들

(낮에 향아리를 열어놓으면/ 눈 밝은 햇님도 와/ 기웃대고
어스름 밤이 되면/ 달님도 와/ 제 모습 비춰보는 걸
뒷산 솔숲의/ 청솔모 다람쥐도/ 솔가지에 앉아 긴 꼬리로
하늘을 말아 쥐고/ 염주알 같은 눈알을 또록또록 굴리며
저렇게 내려다보는 걸
장독대에 먼지 잔뜩 끼면/ 남사스럽제)

어제 말갭게 닭아놓은 향아리들을/ 어머니는 오늘도/ 닭고 또 닭으신다
지상의 어느 성소인들/ 저보다 깨끗할까
맑은 물이 똑똑 흐르는 행주를 권/ 주름투성이의 손을/ 향아리에 얹고
세례를 베풀 듯, 어머니는/ 어머니의 성소를 닭고 또 닭으신다

- 고진하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장로 : 한완식 윤석철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찬양	579. 어머니의 넓은 사랑	다 함께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만남과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사십시오. 마주봄이 기쁨이 되고, 함께함이 즐거움이 되게 사십시오. 서로 고마움을 표현하며 사십시오. 천국은 우리의 관계 속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다 함께:	아멘. 기쁨과 즐거움을 남에게서 받으려 할 뿐 먼저 다른 이에게 주면서 살지 못한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관계와 만남 하나하나를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젠 내가 먼저 섬기고 나누며 살겠습니다. 마주봄이 기쁨이 되게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복		담임목사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청파성서학당 / 강의 : 김기석 목사	낮 집회 / 설교: 김기석 목사
세월호 유가족 간담회	저녁성경연구 / 강의: 이범석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범석 목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하현철 장로	리 봄 선생 이영란 집사

5	영접위원	김정민 김종락 최재욱 박영신 이수정 이현순
	헌금위원	한완식 박미영

믿음으로 읽은 글

성소와 성인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경험 이 그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어느 해 늦은 봄날의 일입니다. 산기슭에 내리는 오월의 햇살이 잉걸불처럼 따가웠습니다. 나는 엽서를 부치러 자전거를 타고 우체국에 다녀오는 길이였지요. 능소화 넝쿨 흐드러지게 벌어진 현관 앞에 자전거를 세우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문득 등 뒤에서 나직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장독대의 들쭉날쭉한 향아리들 사이에서 작은 키의 노모가 하얀 찢레꽃처럼 웃고 계셨습니다.

“어딜 갔다 오시나?”

어느 때부턴가 노모는 나에게도 꼬박 공대를 하십니다.

“우체국에요. 어머니는 별이 이렇게 따가운데 뭘 하세요?”

“보면 모르시나? 장독대를 닦고 있다네.”

노모의 손에는 물이 푹푹 흐르는 하얀 행주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팔순이 훨씬 넘어 딱히 할 일이 없으신 노모는 틈만 나면 세숫대야에 물을 떠서 장독대 옆에 놓고 행주를 물에 적서 향아리들을 닦곤 하셨습니다.

“별이 좀 수그러들면 닦지 않으시고…….”

“황사가 뿌얹게 내려앉은 게 보이시질 않느냐? 기왕 닦던건데 뭘.”

노모는 더 말씀을 하시지 않았지만, 장독대의 청결은 식구들의 건강한 식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다는 것이 평소의 지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독대를 깨끗하게 닦으면 당신의 마음도 깨끗해지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잠시 우두커니 서서 향아리를 닦는 노모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느새 이마에 구슬땀이 송글송글 맺힌 노모는 맑은 물이 푹푹 흐르는 행주를 왼 손을 향아리에 얹고 마치 사제가 세례를 베풀 듯

정성스럽게 닦고 또 닦으셨습니다.

‘그래, 예배당만 성소(聖所)는 아니지, 어머니에게는 장독대도 하느님께 예배드리는 성소 같은 곳이지. 장독대를 닦으며 당신 마음도 정화하시고, 그 정화된 마음에 하느님을 모셨을 테니까!’

이런 생각을 하니 문득 가슴이 몽클해졌습니다. 그리고 노모의 손길로 반짝반짝해진 장독들을 보며 내 혼도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상 배움이 없는 까막눈의 노모는 일상의 초라한 장소마저 닦고 또 닦아 성소로 바꾸어놓았던 것입니다. 성소가 어디 따로 있지 않다는 걸 몸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흔히 종교인들은 성속(聖俗)을 나누는 이분법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과연 성속이 무 자르듯 간단히 나뉠 수 있는 것일까요. 예컨대 종교의식이 집전되는 예배당은 성스럽고, 호객 소리 드높은 저잣거리는 속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문자 그대로 이런 이분법을 맹신하는 이들은 ‘장소의 신비’에 기만당할 위험이 농후합니다. 만인이 성소로 떠받드는 장소라도, 장소가 사람을 성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스러운 사람이 그곳을 성스럽게 만드는 법이죠.

세상 만물의 가장 작은 조각들에도 신의 지문이 찍혀 있네.

남미 니카라과 출신의 수도사이자 시인인 르네스토 카르테날의 시구입니다. 만물의 가장 작은 조각들, 이를테면 나뭇잎이나 돌맹이 같은 존재에도 신의 지문이 찍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인에게 만물 가운데 성스럽지 않은 존재란 없을 것입니다. ...

나의 노모 역시 무심코 그것을 내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느님은 교회나 성당에 더 많이 계시고 들판이나 저잣거리나 장독대 같은 곳에 더 적게 계신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어리석음을 벗지 못해 하느님을 어떤 특정한 공간에 가둔다 한들 하느님이 그런 공간에 갇혀 계시겠느냐고. 울타리 없는 하늘처럼 광활한 자유를 누리시는 하느님은 우주 공간 어디에도 갇히실 분이 아니지 않느냐고. ...

- 고진하, 「시 읽어주는 예수」(비채) 중에서